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전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발전 대책 마련 요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0일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날 열린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35명 중 33명이 동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미반영 등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

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즉각 철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구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및 국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각 정당 대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중소기업상권과 전통시장의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등의 문제를 따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바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공연을 펼쳤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출발

6월 3일까지 학생전국대회와 함께 전주 일원서 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국악 경연대회인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화려한 전야제 공연을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국악계 명인들이 참여해 경기민요와 단막창극 등 다양한 전통예술무대를 선보였으며, 국악인이자 트로트 가수인 강태관, 국악신동 김태연 등 대중가수 공연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주말 저녁 노송광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찾은 관람객과 국악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은 이날 전야제 공연에 이어 총 4차례 더 펼쳐질 예정이다.

전통국악 창작무대와 대사습놀이 장

원자 무대 등을 만날 수 있는 축하공연은 오는 24일과 29일, 30일, 6월 1일 등 4일간 오후 7시부터 전주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펼쳐진다.

이와 관련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2회 학생전국대회'는 오는 6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종합본선은 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월 3일 진행되며, 판소리 명창부와 무용 명인부 등 주요부문의 치열한 본선 경연은 MBC를 통해 전국에 송출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전야제 공연 외에도 전국대회 기간 장원자 무대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전주를 찾아주시는 국악 애호가들에게는 전주만의 향기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의회,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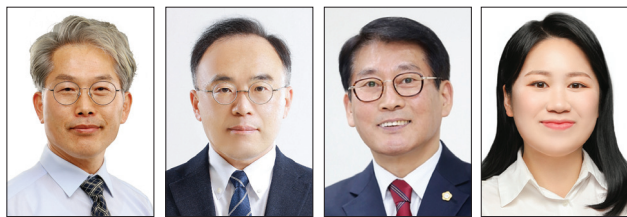
- 한승우 의원, 교통약자 위한 시내버스 저상버스 고른 운영 요청
- 이국 의원, 가련산 순국학도현충비 이전 관리·구 법원 부지 개발 촉구
- 김윤철 의원, 전주시 보훈 수당 인상·형평 지급 주장
- 신유정 의원, 전주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마련·노동권 보장 제안

20일 전주시의회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은 "전주시 저상버스는 74개 노선 중 23개 노선에서만 운영되며 농촌지역 운행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는 저상버스 운영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전주시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고름 시내 전역에 고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은



가련산 순국학도현충비 관리와 구 법원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련산에 세워진 기념비가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천동 보훈누리공원으로 옮겨 송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개발사업인 '전주 로파크'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

/김옥기기자

전주시, 청년 대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실시

전주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시와 전주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20일 청년이음전주 교육장에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3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점검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 임대차 신고 △전입 신고 등 전세 계약 체결 전 알아야 할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임대인과의 분쟁 사례 발생시 대처 방안 등도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달팽이유니온에서 맡았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



전주시와 전주시주거복지센터는 20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주거생활을 영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전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주차장 조성·교통시설물 설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와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